

과도한 자극에 끌리는 인간 본능의 비밀

‘인간은 왜 위험한 자극에 끌리는가’

디어드리 배릿 지음



인간의 본능은 그들 조상이 사바나에서 생활할 때부터 그곳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화해왔다. 그러나 농업이 정착한 이래로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 본능과 우리의 환경 간에 괴리가 발생했고, 그로인한 여러 문제와 갈등이 증가하게 됐다. 급기야 현대 사회의 인간은 포르노그래피, 정크푸드와 패스트푸드, 선전·선동, 스포츠, 게임 등 갖가지 위험요소로 둘러 싸여 허덕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디어드리 배릿 하버드대 진화심리학 교수가 쓴 ‘인간은 왜 위험한 자극에 끌리는가’는 책제목처럼 중독, 비만, 전쟁 등 오늘날 인간을 사로잡는 ‘위험한 자극’에 대한 명쾌한 설명과 그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벨상을 수상한 네덜란드 동물학자 니코 티버겐의 ‘초정상 자극’(Supernormal Stimuli)이라는 개념을 빌려온다. 티버겐은 1930년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본능을 진화시킨 원래의 물건보다 실험자가 만든 모조품이 그 본능을 더 강하게 자극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초정상 자극’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했다. 육아기생, 일명 탁란(托卵·어른 새가 다른 종류의 새의 집에 알을 낳아 대신 품어 기르도록 하는 일)이 그 좋은 예다. 새들은 빠꾸기가 자신의 동지에 풀레 낳은 알이 더 밝고 크다는 이유로 자신의 알보다 더 정성껏 품는다. 정성을 벗어난 과장된 화려함임에도 더 끌리게 된다는 것이 그

체다. 저자는 티버겐의 실험실을 21세기 현대 사회로 옮겨,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과도한 자극들이 어떻게 우리의 원시적 충동들을 압도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저자는 동물행동학, 진화인류학, 심리학의 성과를 아울러 인간본능과 진화 사이의 단절을 설명하고, 1930년대 이후로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했던 초정상 자극 개념을 되살려 그것이 현대 사회의 섹스, 건강, 국제관계, 미디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흥미롭게 탐구해 간다. 책은 우리를 둘러싼 초정상 자극을 과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로 야기된 현대 사회의 문제에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각각의 해결책은 구체적이고도 명쾌하다. 저자는 “이제 우리는 환경을 스스로 설계해 자연이 우리를 설계하던 그때의 환경에 보다 가까운 상태로 되돌릴 필요가 있고, 우리 주변에 불가피하게 남아 있는 초정상 자극들을 인식하고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또 다행히 초정상 자극에 그대로 휘둘리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에게겐 커다란 뇌가 있고,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할 본능을 이길 자제심이 있기 때문에 그레도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본다. 인류의 진화와 본성에 관한 문제를 다룬 책이라 딱딱하고 지루할 거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지만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고, 호소력 있는 문장으로 구성돼 있어 비교적 편하게 읽을 수 있다. 원저 ‘Supernormal Stimuli’, (이순·1만3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주변에서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정크푸드와 패스트푸드. 현대인들은 ‘비만’이라는 위험한 자극에 맞서 식욕의 본능을 진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살고 있다.

사진작가 김종만이 보여주는 그녀의 모든 것

‘김점선 그리다’

김종만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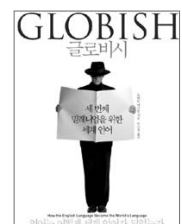
글이 함께 어우러졌다. 최인호는 그녀를 ‘황금의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아쟁마’로 추억했고 정민 교수는 ‘천재’로 기억했다. 장영희는 ‘이제껏 만난 사람 중 가장 곱고 속이 다른 사람, 곱모습은 터프하지만 속은 말랑말랑하고 어린 사람’이라는 글을 남겼다. 책에 소개된 미공개작을 포함한 김점선의 그림 100편과 김종만의 사진 88장은 떠난 그녀를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자료들이다. 특히 들여다 보고 있으면 마냥 행복해지는 김점선의 작품들만으로도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다. <문학의 문학·1만8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화가 김점선은 원색의 말과 꽃 등을 통해 동화같은 작품 세계를 선보였다. 세간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와 언행,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 작가 못지않은 필력으로 가슴에 새길 만한 글을 써내려간 예세 이스트이기도 했다. 김점선 2주기를 맞아 그녀의 모든 것을 담은 책 ‘김점선 그리다’가 나왔다. 그녀와 오랜 인연을 맺어왔던 사진작가 김종만이 팔을 걷어부치고 만들어낸 책이다. 여기에 그녀를 따라 떠나버린 박완서와 장영희, 그리고 조영남·최인호·이해인·정호승·이이화·정민·김용택 등 그녀와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왔던 이들의

영어는 어떻게 글로벌 언어가 되었나

‘글로벌시’

로버트 맥크럼 지음



또한 세계화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이 ‘영어’가 국제적인 의사소통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상징하는 ‘글로벌시’(글로벌과 영어를 합성해 만든 신조어)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저자는 “세계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늘날 지배력을 발휘하는 미국 문화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고 나면,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발전해왔는지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필경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좋은책들·2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텔레비전 시리즈로도 만들어진 ‘영어 이야기’(The Story of English)의 공동저자 로버트 맥크럼 ‘옵서버’지 부편집장이 쓴 ‘글로벌시-세 번째 밀레니엄을 위한 세계 언어’가 번역, 출간됐다. 북대서양 작은 섬나라의 언어였던 영어가 오늘날 세계적인 위력을 가진 언어로 부상하게 된 배경을 세심하게 파헤친 책이다. ‘영어의 세계’로 향한 흥미진진한 여정은 영국이라는 제국으로부터 시작한 영어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거대한 힘을 갖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미발표 詩로 다시 만나는 이오덕

‘이오덕 유고 시집’

이오덕 지음



아동문학가이자 교육자로서 우리 말 살리기 운동과 어린이 교육에 일생을 바쳤던 고(故) 이오덕(1925~2003년) 선생의 미발표 시가 수록된 유고 시집 ‘이오덕 유고 시집’이 나왔다. 1950년대부터 2003년 작고할 때까지 쓴 시 341편을 시대별로 총 6부로 나눠 엮었다. 출판사측은 “아들인 이정우 이오덕학교 교장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

는 과정에서 갈무리된 시들을 모아 엮은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집에는 ‘참꽃이 필 때면’ ‘학교 가는 길’ 등 생전에 아동문학가 이원수 선생에게 준 시 7편도 처음 공개됐다. 또한 이오덕 연구가인 이주영 어린이문화재단 회장이 각 시대별로 선생이 살아 온 이야기와 시에 대해 해설을 썼다. <고인들·3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그가 읽었던 책들에 대한 단상

‘또 한편의 벽돌’

서현 지음



건축가 서현의 책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의 단단한 인문학적 내공과 깔끔한 글쓰기에 매료됐을 것이다. 또 하나 그의 폭넓은 독서 편력 역시 책에서 고스란히 묻어난다. 서씨가 ‘또 한편의 벽돌-건축가 서현의 난독 일기’를 펴냈다. 대학원생들과 함께 운영하는 홈페이지(salt-workshop.net)에 올려둔 짤막한 감상문을 엮은 것이다. <호형출판·1만 1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책에서는 인간,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 다시 인간 등 5개의 카테고리를 통해 ‘사라진 서울’, ‘삼성을 생각한 다’, ‘남한산성’,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 ‘더 나은 미래’, ‘만들어진 신’ 등 모두 143종을 만날 수 있다. 저자에게 지불한 인세만큼 책에 대해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저자는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해 확고한 의견을 밝힌다. <호형출판·1만 1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웃고 울고 긴장하고... 야구의 재미를 책으로

‘야구를 부탁해’

오쿠다 히데오 지음



역전과 재역전, 무명 선수의 흥런, 9회말 2사 극적인 끝내기, 일본의 인기 소설가 오쿠다 히데오의 ‘야구를 부탁해’는 다양한 야구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오쿠다는 르포 형태로 야구 이야기를 들려준다. 가장 감동적인 야구 경기를 뽑으려면, 국내 야구팬 상당수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일본과의 준결승을 기억할 것이다. 한국은 7회 초까지 1-2로 뒤지면서 끌려가고 있었다. 7회 말, 이진영 선수의 적시타로 2-2 동점을 만들었고, 8회말에는 일본 프로야구 최고의 마무리 투수인 이와세로부터 이승엽이 역전 홈런을 터뜨렸다. <오광록지사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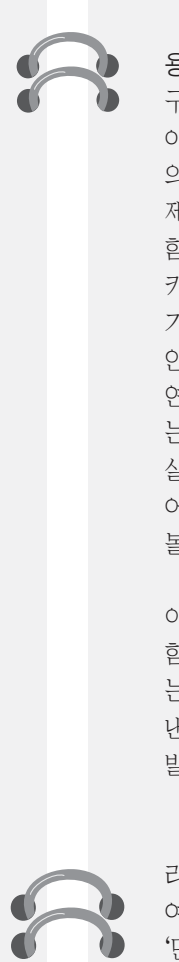
기억했다. 또 일본 대표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올리자 해박한 야구 지식을 동원해 ‘해업쳐서 돌아오라’고 독설을 날리기도 한다.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 구단인 뉴욕 양키스의 경기를 관망하는 내용도 흥미롭다. 저자는 사진만 보고도 그곳이 메이저리그의 어느 구장인지 알아맞출 수 있다고 한다. <재인·1만2800원> /오광록지사 kroh@kwangju.co.kr

신간

▲도종환의 삶 이야기=‘접시방 당신’으로 유명한 시인이자 산문가인 도종환(57)이 1998년 선보였던 에세이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의 개정판.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글 몇 편을 빼고 문장을 다듬은 뒤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살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사계절·1만2000원> ▲나와 아버지는=‘인민을 위해 복무하라’(2005년), ‘딩크 마을의 꿈’(2006년) 등 중국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소설을 주로 써온 중국 작가 앤젠커가 내놓은 에세이다. 1960년대 중국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자신의 유년 시절과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던 아버지와 삼촌들의 고단한 삶을 담담한 어조로 회고했다. 빗바랜 흑백 영상을 연상시키는 담백하고 간결한 이야기들이 잔잔한 울림을 이끌어낸다. <자음과모음·1만3000원> ▲한국의 전통마을을 찾아서=26년간 전통마을을 연구해온 건축학자 한필원 한남대 건축학부 교수가 사상·문화·사회·환경이라는 네 가지 시선으로 우리 전통마을에 내포된 건축의 철학과 원리를 바라봤다. 대구 옷골마을과 성주 한계마을, 순천 낙안읍성, 안동 하회마을, 보성 갈골마을, 경주 양동마을, 나주 도래마을 등 역사와 문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열 두 마을의 건축사례를 통해 한국적인 건축 패러다임을 새



롭게 읽을 수 있다. <휴머니스트·2만8000원> ▲투자가자를 위한 경제학은 따로 있다=일본 경제학자 마카베 아키오가 쓴 행동경제학 입문서. 행동 재무 이론이나 통제의 환상, 인지 부조화 등 금융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와 관련된 부분을 사례를 들어가며 더욱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경제학과 심리학의 성과를 접목시킨 행동경제학의 기본 개념과 행동경제학이 탄생하기까지 경제학의 흐름, 금융 현장의 실무 사례와 응용 범위 등을 알려준다. <부키·1만4800원> ▲삼페인=단막극 등을 집필한 조현경씨의 첫 장편소설. 성공과 욕망을 좇는 톱 디자이너 회경, 재벌가 출신 판사 서진, 미모의 뮤지컬 제작자 헤리 등 세 여자의 심리와 미스터리 사건을 다뤘다. 서진은 연하의 무명 배우 크리스와 비밀스런 사랑에 빠진다. 크리스는 서진과 회경의 도움으로 스타덤에 오르지만 서진의 집안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살해되고 만다. <예담·1만1000원> ▲비워야 산다=환경운동가 지음 스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 대표 박기호 신부, 농부이자 사회복지인인 일각목사, 요가수행단체 ‘아난다마르가’의 수행자 찰다, 노숙인을 위한 무료식당 ‘민들레 국수집’을 운영하는 서영남씨 등이 소유에 목마른 현대인들에게 무소유의 행복을 전한다. 지난해 정동프란치스코회관에서 ‘우리 시대 무소유를 묻는다’를 주제로 열린 대중강연 내용을 엮은 것이다. <휴·1만5000원>



▲제인 구달-침팬지의 웅감한 친구=침팬지 연구에 일생을 바치고,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지구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제인 구달의 삶을 사진과 함께 알아가는 책이다. 출로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갔던 용기, 지치지 않는 열정과 인내심, 정확하고 세심한 연구 자세, 동물을 존중하는 마음 등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녀의 매력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한겨레아이들·1만원> ▲와이드와이드 오색한 생일초대장=머리가 좋아지는 동화 시리즈 9권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책이다. 안개 낀 산꼭대기에 사는 마녀를 둘러싼 소문을 믿지 않고, 마녀가 보낸 상자를 열어 본 동물이 세상에서 가장 기발한 생일파티에 가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르볼·9500원> ▲엄마가 치워=정리도 놀이처럼 즐겁게 따라하다 보면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엄마를 닮아 정리하는 것을 싫어하는 ‘민지’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할머니를 통해 정



리·정돈 습관을 길러가는 과정을 담았다. 정리 정돈 지수 테스트,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정리 습관 4가지를 부록으로 실었다. <스콜라·8500원> ▲꽃나라를 달리는 기관차=원로 동화작가 조장희씨가 16년 만에 펴낸 신작 동화집. 파킨슨병으로 휠체어에 의지한 채 투병 중인 저자가 어린 시절 기관사였던 아버지를 잃은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열한 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읜 소년과 소년의 꿈속에서 기관차를 타고 꽃나라로 떠난 아버지의 이야기를 환상적으로,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에디터·1만원> ▲해리엇=제11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을 받은 연극연출가 한윤섭씨의 두 번째 장편 동화. 175년 동안 바다를 품고 산 갈라파고스 거북 해리엇과 아기 원숭이 찰리의 이야기를 통해 동물을 야만적으로 대량 사육하고 육식을 즐기는 인간들에게 ‘인간이 진정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문학동네·9500원>

어린이 책꽂이